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관 1층
TEL: 063-859-2400 ~ 2410 FAX: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8월 3일 수요일 (음 7월 1일)

제161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바람 따라 춤 추듯

2일 오후 어느 연꽃 단지에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연꽃들이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다.

도내 공기업 노조 “성과연봉제 반대”

행자부, 이사회결의로만 도입 완료

전개공, 지난달 중·하순 천막농성 등 통해 반발 전주시설공단, 조합원 투표 통해 반대 입장 밝혀 “노조 합의 이뤄지지 않아... 국가가 법 위반한 것”

정부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도내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해 반발세가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전북지역 3개 지방공기업 중 137개(96%)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임금체계로 지난 2010년 6월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이후 적용대상을 기존 간부급(1~2급)에서 비간부직까지(4급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내년 1월1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5월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후 조기도입 기관에 대해 평가점수에서의 가·감점과 연봉월액의 50%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감점(3점) 외에도 도입 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연내 미도입시 총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선결조

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노조 간 시각차가 극명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도내에서 해당되는 지방공기업은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등 총 3곳이다. 이들 가운데 노조가 있는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공단 측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대한 반대 가두행진과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펼친 천막농성을 통해 반발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전주시설공단 측은 이미 지난달 28일 노조 조합원들 간 투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국가가 위반하고 있는데 노사합의 없이 정부 독단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완료시기를 '노사합의서' 또는 '이사회결의서' 등 도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매뉴얼을 구성했다. 이로 인해 전북개발공사 6명, 전주시설공단 8명으로 구성된 각각의 이사회는 지난 6월 말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노조가 없는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전직원 동의서를 통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에 필요한 구성원들의 동의를 무시한 절차에 노조원의 분노가 서려있어 실제 성과연봉제가 실행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강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가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고민형 기자

▶ 매일 INDEX
3면 '교육부 사드배치 교육강요 안될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의 대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제능과 열정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지역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는 전주매일이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자세를 겸비한 인재를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경력·수습)	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 접수기간 2016년 8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4층
문의전화: 063-288-9700(본사 총무팀)
e메일: jjmaeil1@hanmail.net

전주매일

오늘 전주서 새누리 전당대회 호남 합동연설회

전북 표심을 잡아라

새누리당 전당대회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3일 오후 2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는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박명재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대표 후보들이 대거 방문, 전북 표심을 잡기 위한 열전에 돌입한다. 또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한경노 광주시당위원장, 김중대 전남도당위원장, 강지용 제주도당위원장 등 호남당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3,500여 명이 운집할 예정이다.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창당 이후 전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참석, 전북당원의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현재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에는 이정현(3선·전남 순천), 이주영(5선·경남 마산창원합포), 정병국(5선·경기 여주양평), 주효영(4선·대구 수성)을 비롯해 한선교(4선·경기 용인)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또 청년·여성후보에 각각 배정된 1석을 포함해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는 조원진(3선·대구 달서), 강석호(3선·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이장우(재선·대전 동구), 정용기(재선·대전 대덕구), 함진규(재선·경기 시흥)의원과 정문헌(재선·원외) 전 의원, 여성 후보로는 이은재(재선·서울 강남), 최연혜(초선·비례)의원이 출마한 상황이다. 이 중 최고위원 경선(일반 3석, 여성 1석)과 별개로 치러지는 청년 최고위원 경선에는 1석을 놓고 이부형 당 중앙청년위원장과 유창수 글로벌 정치연구소장, 이용원 사회안전방송 대표 등 3명이 맞붙고 있다. 이들 후보들이 전북발전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발표될지에 전북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자들은 새만금개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탄소·금융허브·농식품산업 등 전북발전에 대한 공약 제시는 물론 전북예산확대 등 전북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전주를 국회의원)은 “호남민심이 지난 4.13선거를 기점으로 새누리당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면서 “당 지도부가 서진정책을 통해 호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전북당원은 6만 3,000명에 이르고 있고, 선거인단은 4천3백명으로 전국 34만 유권자의 1.3%를 차지한다. /신광형 기자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 '九景' 구경 오세요!

역사·문화·관광·자연이 어우러진 대표적 명소 각광!

1 내장산 단풍터널

2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4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5 백제가요 정읍문화공원

6 피향정 연꽃

7 정읍천 벚꽃길

8 전설의 쌍화차거리

9 백정기 의사 기념관